

부처님오신날  
대형행사 개최

## SGI, 불교 표방 '공론화'? (창학학회)

15일 잠실운동장서 '2005 나라사랑대축제' ... 10만 신도 운집

“불교교단 인정 못한다” 정서 속 불자들이 혼란 우려

평소 불교를 표방해 온 한국 SGI(Korea Soka Gakkai International, 한국창학학회)가 부처님오신날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대사회적으로 공개적인 종교활동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한국SGI를 불교교단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문이 형성되지 않은 불교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불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한국SGI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05 나라사랑 대축제'를 개최했다. '희망을 만들어요'라는 테마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참가한 10만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2만여명이 '독도는 우리땅'을 새긴 카드섹션을 연출한 것을 비롯해 8백여명의 사물놀이와 2백여명의 마칭밴드 퍼레이드, 3백여명의 컬러가드 군무, 5백여명이 펼친 가로 80m 크기의 초대형 엔블럼 퍼포먼스, 3백여명의 기수단 행렬 등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띄웠

다. 또 축하·문화공연과 공식행사는 대형퍼포먼스, 개회사, 불우아동과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기금 전달, 나라사랑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SGI측은 행사자료를 통해 '평화와 희망을 향한 역사의 전환' '계승과 세대를 초월한 평화의식의 공감대 형성' '희망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문화 실천방안 제시' 등을 이번 축제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조용히 활동해 온

한국SGI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의혹의 시선이 보내지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가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고 치러져 한국SGI가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한국SGI는 일본에서 유입돼 1975년 교단의 형태를 갖춘 이래 30년동안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번 행사와 관련 한국SGI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법화경>을 신봉하는 불교신

도단체로 현재 190개국에서 신앙하고 있는 세계적 종교단체"라며 "한국에서는 120만명이 신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SGI는 불교단체로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유수종단에 버금가는 신도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SGI가 짧은 기간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전국을 35개 방면, 111개교으로 나누어 신도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통적인 불교를 부정하면서도 불교 신도단체를 자처하는 한국 SGI가 교세를 확장할 경우 불교의 왜곡된 전파가 우려된다. 사진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 한국 SGI 주최로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2005 나라사랑 대축제' 모습. 이날 10만여명의 한국 SGI 신도가 참가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하안거 결제 범위 8면

### 모스크바에서 한국불교를 검색한다

本社 5월 23일 러시아판 부다피아 오픈 ... 뉴스·경전 등 콘텐츠 다양

유물론의 고향 러시아에 '마음이 곧 부처'임을 전하는 법음(法音)이 인터넷을 통해 메아리친다. 현대불교는 5월 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어 불교사이트인 '러시아판 부다피아(russia.buddhapia.com)'를 오픈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생애, 한국 전통사찰 사진전, 불교용어사전, 반야심경 해설, 고려인 한마당 게시판, 부처님오신날 특집, 법어, 불교

뉴스, 러시아인 축사 등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이 사이트는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국불교를 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미리 살펴 본 러시아 출신 귀화 사학자인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는 "러시아 불자들이 뜻한 일을 해 줘서 감사하다"며 "학구적인 러시아 지시인들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갖출 경우 러시아 불교 발전에



큰 자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russia.buddhapia.com

몽골이나 중국 또는 티베트를 통해 18세기 이전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래까지 불교신앙의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세계 불교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낮지 않다. 베토링크, 로드, 슈미트, 프란츠 등 수많은 불교학자를 배출해 이른바 '러시아 불교학파'를 형성할 정도다. 러시아불교연합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젊은이들이 불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으면서 불교의 교세는 더욱 커져갔으며, 현재 전체 인구의 0.1%에 해당하는 40여만 명이 불자라고 한다. 러시아불교

연합에 가입된 단체로는 '닷산 쿤츠세초이네이 불교사원' '로터스 달마 센터' '타베트불교 연구소' '모스크바 불교센터' '사카이 페테르부르크 불교회' 등 18개 불교단체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티베트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불교단체 가운데 한국의 연동국제불교 원명 스님이 91년 타슈켄트에서 설립한 정각사와 승산 스님이 모스크바에 개원한 관음선종 지부 등이 눈에 띈다. 러시아 불교는 지난 해 12월 달라이 라마의 방문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알림

###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5월 27일 접수 마감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교생/중학생/고등학생
- 참가비: 28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참가신청: 5월 27일까지
- 주최: 현대불교신문
- 주요프로그램:
  - 여학연수 - 원어민 선생님의 총 6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 폴리네시아민속춤 및 공연관람,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 한인이민촌의 탐사, 사탕수수농장 하와이 플랜테이션 방문,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관람, 전 세계 유물을 한곳에 모아 놓은 비숍박물관 관람.
  - 해양스포츠 -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에이 탐험, 크루즈여행, 잠수함 및 요트여행.
- ※ 지난해 참가자에게는 와이메하공원 원주민체험, 쿠알로아목장 승마체험, 워터파크 등 별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722-4162-3, 010-95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로 휴대가 용이하며,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 상량, 영가, 천도, 불사)

“하단같은거 잘모든다 계승도 모른다”  
“진언(眞言)은 불출구(不出口)여”  
그림: 조태호  
동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신문사  
보살님! 올 백중재에는 '염불환향곡'이 인기입니다!  
어디 염불만한 기도와 수행이 있겠습니까?  
올 봄,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을 출간하였습니다. 『염불환향곡』은 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외우거나 따라 읽기 쉽게 리듬이 스며있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제 염불로서 각 가정에 부처님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  
기성래선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해설집: 신국판/198쪽/가격 7,000원  
독송집: 국배판/ 92쪽/가격 5,000원  
구입은 인터넷·통신판매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즉시 전화·인터넷 주문배달되며, 대형 서점 및 불교출판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중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대), 02)2004-8220(여시아문),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